

[전문가 특별기고]

**해양 인문학의 모색과  
해양문화콘텐츠의 방향**

남승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swnam@pknu.ac.kr)

1. 문제제기

지구촌 전체가 당면한 생태파괴로 인한 고통을 인문학이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인문학의 개념으로는 이 거대한 지구촌이 앓고 있는 병을 치유하기 힘들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새로운 인문학의 모색을 통해 지구촌이 당면한 현안을 치유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인문학의 본질은 인간의 존재성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근원적 문제는 종교적 차원이 아니면, 쉽게 해답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동안 인간 삶의 근원적 질문에 철학과 역사와 문학이 나름의 대응을 해왔지만, 영원한 이 숙제는 여전히 진행형의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인류문화사적 특성은 시대마다 인간 삶의 지향점이 변해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성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되어 온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또한 변화해온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인문학의 역할이 그 시대마다 새롭게 정립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의 환경은 급속하게 변했다. 가늠하기도 힘든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는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특히 인류문명이 직면한 생태파괴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인류 모두가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최대의 과제가 되었다. 인류가 당면한 이 위기의 현실을 초극할 수 있는 방안을 첨단 과학기술로써 모색할 수도 있겠지만, 근원적인 치유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인문학적 사유를 필요로 한다. 기술적 처방은 또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계속 인류문명을 창조해간다면, 인류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다. 인류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사유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 인문과 과학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자연/사회라는 이원적 존재론에 머물 때 두 문화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두 문화의 진정한 극복을 위해서는 자연/사회의 이원적 존재론을 넘어서야 한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새로운 존재론의 모색에 나선 것이 행위자 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이다. 이들이 제시한 탈이원론적 존재론에 대하여 최근 여러 학자들은 관계적 존재론(relational ontology)<sup>1)</sup>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관계론적 존재론이란 무엇인가?

관계적 존재론이란 모든 실재가 행위자들(인간과 비인간을 모두 포함한) 사이의 관계적 실천들로부터 창발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실재란 원래부터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들 속에서 창발한다는 것, 따라서 항상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불확실성과 가변성을 지니는 다중체라는 것이다. 존재가 아니라 생성이란 것이다. 이것은 근대세계의 탄생과 더불어 나타났던 이원론적 존재론과는 전혀 다른 실재관이다. 이는 이원론적 존재론에 기반했던 두 문화의 극복 가능성을 열어줄 뿐 아니라, 근대주의가 초래한 생태위기를 새롭게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도 한다<sup>2)</sup>.

그래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인간이 주로 삶과 사유의 대상으로 삼았던 땅과 하늘과의 관계성을 넘어 바다를 새롭게 관계론적 존재로 부각시킴으로써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생태파괴의 현안을 초극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바로 지금까지 인

1) 브루노 라투르외/홍성욱역(2010). 『인간·사물·동맹』, 도서출판 이음, 2010, pp.323.  
2) 위의 책, pp.323- 324.

문학이 관심해왔던 고착된 인문영역을 과감히 넘어 과학(해양학)을 통해 새로운 인문학을 창발하는 경계 허물기이다. 즉 지금까지 인간이 추구한 땅과 하늘 중심의 관계론적 존재론에서 벗어나 바다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인간존재의 새로운 인식의 틀로 삼고자 함이다.

## 2. 육지중심의 사유에서 바다 중심의 사유로

지금까지 인류는 육지를 중심으로 인류문명을 건설해왔다. 그 결과로 육지의 자원은 갈수록 고갈되어 가고 있고, 생태계 파괴로 인한 인류의 삶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인류 사회의 발전을 위해 갈수록 해양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sup>3)</sup>.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전하기까지 한순간도 해양을 벗어나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해양에 대한 인식은 무시되거나 경시되었다.

더욱이 비교적 일찍 공업화 사회에 진입한 일부 국가에서는 육상 자원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기 때문에 왕왕 인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기대치 않으면 안 될 자연자원과 환경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구의 생태계는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들은 선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해서 약탈적 개발을 또다시 전개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지구촌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구 표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마지막 영토인 해양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다<sup>4)</sup>.

그러나 막연하게 바다로 눈을 돌린다고 현재 지구촌이 당면한 현안을 당장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육지로부터 비롯된 오염은 바다도 오염시켜 사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바다로 눈을 돌리되, 육지에서 이루어진 그 동안의 사유로 바다에 눈을 돌린다면, 인류의 미래는 더욱 암담할 수밖에 없다. 육지에서 이루어졌던 전쟁과 갈등의 인류 문명사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육지와는 다른 바다가 지닌 특성에서 연원하는 사유를 통해 육지에서 이루어졌던 오류를 넘어설 수 있는 사유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 3.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치유를 위한 인문적 사유

인간은 이제 하늘과 땅과의 관계론적 존재론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과 바다를 새롭게 인식하면서, 땅이 지닌 경계와 분열과 전쟁의 역사를 전환시킬 사유의 틀을 바다에서 건져 올려야 한다. 바다의 원형적 이미지에서 우리는 생명과 평화, 공존과 열림, 순환과 교류, 그리고 평등의 토대를 모색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다를 통해 생명, 평화, 공존, 열림, 순환, 교류, 평등 등을 모색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인류의 문명이 부산물로 남겨놓은 경쟁과 갈등과 전쟁, 경계와 불통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해양인문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육지를 중심으로 계속되어 온 산업화와 기술의 발전이 인간 삶에 공헌한 바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해 있는 갈등구조를 초극하지 않으면, 미래를 전망하기 힘들다. 이에 근원적인 인식사유의 전복이 필요하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지녔던 하늘 · 땅 · 사람 중심의 세계인식 틀을 하늘 · 땅 · 바다 · 사람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다를 새롭게 인간과의 사이에 중요한 관계론적 존재론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럴 때 바다는 새롭게 육지의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면 육지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인류가 과제로 남겨놓은 현안을 초극할 수 있는 바다의 원형적 이미지를 어떻게 추출해내어 해양인문학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까? 이는 달리 말하면 육지와는 다른 바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해양문화의 특성을 통해 그 방향성을

3) 곡금량/김태만, 안승용, 최낙민역(2008), 『바다가 어떻게 문화가 되는가』, 산지니, pp.90.

4) 위의 책, p.91

찾을 수밖에 없다. 해양문화의 특성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 볼 수도 있지만<sup>5)</sup>, 첫째는 생명의 본연성과 아름다움, 둘째는 공존성, 셋째는 교류성, 넷째는 개방성을 우선 들 수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우선 바다가 지닌 이 점들을 중심으로 해양인문학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1) 생명의 시원과 생명재생의 공간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결론은 생명의 시원이 바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인류의 생명은 해양에서 오고, 해양이라는 자연천성의 광대한 장관, 변화무쌍함, 거대한 에너지, 자유분방함, 무궁한 신비감 등이 인류로 하여금 이 해양을 생명본능의 대상물이자 힘과 지혜의 상징이자 담지자로 여기게끔 만들었다<sup>6)</sup>. 그런데 산업화, 도시화된 현대문명은 자신들의 배설물을 쏟아내며 생명의 근원이었던 바다를 재생 불가능한 바다로 만들고 있다. 아직 심해까지는 미치지 않았지만, 연안의 바다는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바다가 육지에서 배출하는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정화시키고 있지만, 바다가 지닌 재생력을 넘어서 있기에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바다가 지닌 원초적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육지 중심의 사유로 인해 빚어진 생명파괴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사유가 가능하다. 즉 바다는 육지에서 삶을 주체하고 있는 인간의 아픔과 슬픔, 절망을 치유하는 생명재생의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다와 육지를 두고 본다면, 바다는 육지보다 더욱 큰 인류생명의 본연성과 장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바다가 지닌 원형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들은 육지 중심의 사유가 파생한 비생명적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한다.

5) 해양문화의 특성을 여러 논자들이 몇 가지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방성, 외향성, 모험성, 숭상성(崇尚性), 다원성, 개척성, 원창성(原創性), 진취성, 표류성, 섭해성(涉海性), 생명의 본연성과 아름다움 등이다. 곡금량/김태만, 안승용, 최낙민역, 위의 책, pp.51-60.  
6) 위의 책, pp.58.

### 2) 월경하는 공존공영의 공간

바다를 통한 인류와 물자 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월경성(越境性)이다. 바다는 원래 경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국가가 성립되면서 육지의 땅에 국경을 정하듯이 바다에도 인위적으로 선을 긋기 시작한 것이다. 바다에 선을 그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의 설정 범위와 방법 그리고 논리가 문제시되었다. 이러한 바다의 경계론에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사상이 관여하고 있다. 하나는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라는 사상이며, 또 다른 하나는 바다는 우리의 것이라는 사상이다. 전자는 바다는 광대하기 때문에 누구의 것도 아니라는 공유론을 의미하며, 후자는 소유권, 이용권, 점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이다<sup>7)</sup>.

땅은 개인 혹은 국가 단위의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하였고, 바다는 이런 소유개념이 땅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로 올수록 바다에 대한 소유와 분할에 논쟁은 상당했다.

그러나 이렇게 바다가 각국의 위치에 따라 해면의 소유나 영유를 하고 있기는 하나 육지와 비교하면 바다는 많은 공간을 공존의 영역인 공해로 남겨두고 있다. 오늘날에는 영해범위의 확대,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및 군도수역제도(群島水域制度)의 등장으로 공해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육지와는 다르게 지구촌 전체가 공용할 수 있는 공해가 있다는 것은 바다가 지닌 육지와는 다른 태생적 조건이며, 중요한 원형적 이미지이다.

### 3) 해수의 순환과 교류의 공간

지구에는 대기의 순환이 있고, 바다에는 해수의 순환이 있다. 세계 각지의 기후는 이 두 가지 순환계의 상호작용에 지배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대기의 순환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편재(偏在)로 인해 발생한다. 적도 부근에서 뜨거워진 대기는 상승하고, 극부근에서 차가워진 대기는 하강하여 양 지역 사이에 대기의 대순환이 일어난다. 대기 순환은 태양 복사열의

7) 오모토 케이이치외/김정환역, 『바다의 아시아1』, 다리미디어, 2003, pp.2.

지역차로 인해 일어나지만, 해류는 바람에 의해 발생한다. 저위도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과 중위도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으로 인해, 북반구에서는 시계방향, 남반구에서는 시계반대방향으로 해류의 큰 흐름이 생긴다. 해류는 대기의 순환 시스템과 연동할 뿐만 아니라 각지의 해양환경도 결정짓는다. 이 바다의 순환 시스템이 각지의 해양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데, 태평양으로 보면, 아시아 최대의 해류는 태평양 서안으로 북상하는 쿠로시오 해류이다.

오대양에서 생성되어 흐르고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해류의 흐름은 해안의 생태계를 다양하게 형성할 뿐만 아니라, 서로 교류하며 순환하는 특징을 가진다. 바다의 해류는 끊임없이 순환하며 교류하면서 바다의 다양한 생물들을 살아가게 하는 환경과 조건을 형성해준다. 이러한 바다 해류가 지닌 순환과 교류의 특성은 땅을 경계지워 국경을 만들고 갈등해온 인류의 갈등을 소통으로 넘어설 수 있는 사유의 터를 마련해 준다. 바다가 지닌 교류의 원형적 이미지는 땅 중심의 사유가 지닌 불통의 이미지를 초극할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4) 열림을 통한 개방성과 다양성의 공간

바다는 6대주의 육지와 크고 작은 섬들과 연결되어 있고, 인류의 대다수 민족, 국가, 지역은 바다에 면해 있다. 바다는 인류를 향해 남김없이 개방되어 있다. 육지의 도로나 철로는 인공으로 부설되었지만 바다의 도로와 철로는 자연이 만들어준 것이다. 이런 천연적 개방성이야말로 그 누구도 가로막거나 끊어 없애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인류는 이러한 바다의 개방성을 이용해왔다<sup>8)</sup>.

바다라는 공간은 광역 지역을 구성하는 다문화, 다민족, 다권력의 상호관계를 형성시켰으며, 대량의 물자나 인원 수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해양자원은 배후지나 내륙과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연안에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가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sup>9)</sup>. 이러한 도시를 가능하게 한 것이 해역이다. 해

역세계는 연해(沿海), 환해(環海), 연해(連海)의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연해(沿海), 환해(環海), 연해(連海)에 의해 성립된 해역 세계는 육지와는 달리 다원성, 다양성, 포괄성을 지닌 개방적이고 다문화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이러한 다양하고 개방적인 항구도시를 가능하게 한 근원적 토대는 바다가 지닌 열린 공간에서 비롯된다.

#### 4. 해양인문학에 바탕한 해양문화콘텐츠

인간의 기술적 진보에 의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지구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위기를 초극할 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육지 중심의 사유로 형성된 그 동안의 패러다임을 바다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그 가능성은 없을까? 바다가 원형적으로 지니고 있는 생명의 본연성과 아름다움, 공존성, 교류성, 개방성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이 해양인문학이 추구해야 할 몫이고, 해양인문학이 이 시대의 생태적 위기를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인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장면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해양성의 원형적 이미지를 구체화할 해양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시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몇 가지 방향은 첫째, 바다를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일이다. 폐선을 활용하여 Book Ship을 만들어 일상 속에서 활용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해안선 연안에 폐가들을 활용한 레지던스 공간이나 다양한 문화공간을 구축하는 일이다. 셋째는 바다 위에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며, 네 번째는 수중 영화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마련 등이다. 이러한 시설만으로 해양인문학을 구체화해 가기는 힘들지만 이러한 작은 문화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바다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꾸어 나간다면, 21세기 해양인문학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감수: 강윤구(yoonkoo.kang@samsung.com)

8) 곡금량/김태만, 안승용, 최낙민역, 앞의 책, pp.57.

9) 오모토 케이이치외/김정환역, 앞의 책, pp.136.

10) 위의 책, pp.140.